

건강 상담실 (담담의사: 한국기생충박멸협회 부설의원 박인규)

【문의】 저는 항문이 간질간질하여 수차에 걸쳐 농촌 약국에서 조제해 주는 약도 복용하고 비자등을 먹기도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생하는 농민입니다. 그 기생충을 육안으로는 못보았지만 요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치료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군 남기만)

【진료】 요충은 우리나라에서 회충편충 다음으로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는 기생충으로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많은 감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충은 1cm미만의 하얗고 작은 기생충으로 맹장, 충수돌기, 상행결장 하부에 기생하는데 산란기가 되면 밤에 대장 직장을 지나 항문주위에 기어나와 절막 피부동에 산란하며 알컷의 1일 산란수는 평균 11,000개 정도입니다. 충란은 산란한지 약 5시간만 지나면 성숙란이 되는데 취침시 이불속에서 항문주위의 온도가 높아 젖을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충은 다른 장내기생충과 같이 장내에서 배란되는 것이 아니고 항문주위에 산란하므로 충란이 내의, 침구 등에 오염되어 또 자가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충이 항문주위로 나와서 그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몹시 가려워 잠

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질이 되는 수가 많고 심하게 곪으면 발적(發赤), 찰상(擦傷)이 생기고, 세균의 2차 감염등으로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중에 요충이 감염되어 치료를 요할때는 감염자 한사람만 치료를 하더라도 접안에 충란이 오염되어 있는 한 재감염으로 인하여 치료가 곤란하니 전가족이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항문주위를 깨끗이 씻고 손으로 째지 않도록 하며 손톱은 짧게 깎고 손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요충검사는 장내 기생충검사로써는 검출율이 낮으므로 스킨 테이프(Scotch-Tape)법으로 검사를 하기때문에 구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인근병원이나 본협회 경기도지부(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77-58)에서 기생충검사를 하여 요충의 감염을 확인한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